

# “삼십리 벚꽃길 따라, 전라병영성축제 오세요”

### 3월 31일부터 3일간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서 열려 금곡사 벚꽃축제 연계...4년만에 대면 개최 기대 모아

강진군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달 20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병영성 축제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하자는 주민 여론 등을 반영했다. 축제장은 조선 주막, 조선 의복 체험, 병영난장 운영 등 조선시대 분위기로 꾸며질 예정

이다.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와 수문장 교대식, 줄타기, 무예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전라병영성 인근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하멜기념관, 한글목까지 축제를 확장해 지역이 활기를 불어 넣을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축제에 대한 주민갈증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꽃 피는 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전라병영성 축제장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라”고 전했다. 전라병영성은 조선초 500여 년간 전라남도



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이다. 병영성 내의 당시 건물이나 유적은 소실되고 있으나 성곽은 뚜렷이 남아 있어, 군은 그 역사적 의미를 살려 복원중에 있다. 병영성 동문 맞은 편에는 하멜기념관이 위

치해 있다.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헨드릭 하멜은 병영성에 유배되어 7년간 광 지냈으며, 병영면 한글목에는 당시에 쌓은 담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속도낸다 삼산면 평활리에 8.8ha 규모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도비 43억원 등 총 181억원을 투입해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8.8ha 규모의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2스포츠타운은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해남군은 우슬체육공원에 대단위 스포츠타운이 조성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제2스포츠타운은 숙박과 음식점이 밀집된 삼산면 인근에 조성됨으로써 대흥사 및 인근 숙박시설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해 동절기에 상권 활성화는 물론 미남축제 개최와 연계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2021~2022 전라남도 스포츠마케팅 평가에서 유인원 9만 8,000여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며 전남도 최우수군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늘고 있는 생활체육과 스포츠마케팅 수요에 맞춰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스포츠인들의 해남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13억 투입 다문화가정 행복 지수 높인다 건강 검진 비용·다국어 번역기·친정어머니 되어주기 등 지원

완도군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균형 발전인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심리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

자는 총 396명으로 12개 읍면에 가정을 꾸려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1억 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 건강 검진 비용과 다국어 번역기 지원, 결혼 이민자는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친정나들이 지원, 국적 취득 비용, 행복 정착 지원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는 1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국적 취득 비용은 1인 당 30만 원의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총 1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사례 관리·통번역·자녀 언어 발달·자녀 코칭 등을 15개 사업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안전한 굴착공사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2월27일 '2023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다. 각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도로관리심의회는 이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2023년 처음 개최되는 도로관리심의회인 만큼 접수된 굴착공사들 또한 다양했다. 이번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는 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에서 신청한 상수도, 전기, 통신, 가

스 등 매설사업에 대하여 심의했다. 특히 장흥읍 중앙로 전기, 통신관로 지중화 사업은 교통이 복잡하고 보행자가 많은 구간으로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군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사 중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올해 27년째’ 진도토요민속여행, 4일 개막 진도북놀이·남도잡가·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공연 예정

올해로 27년째를 맞은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이 3월 4일부터 시작된다. 진도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3월 4일 오후 2시부터 '세나라'라는 주제로 개막공연을 개최한다. 개막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잡가,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놀이, 거문고 산조, 살풀이, 사방놀이, 율리품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김종심, 박종숙(강강술래 예능보유자)와 강강술래보존회, 강송대(남도잡가 예능보유자)의 남도잡가 보존회의 초청공연도 함께 열린다.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은 지난 1997년 시작, 27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어 현재까지 957회 공연에 38만여명의 국



내·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진도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소통 코너 운영

장흥군이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How about? 소통코너'를 2월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조직 내 개선되어야 할 문화나 관행,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을 무기명으로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견 제시는 개인에 대한 비방과 인사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양하게 열어 두었다. 합리적 사무분장, 회의문화, 상하 관계 개선, 약성 민원 대응 등 직원들의 뜻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다. 모아진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실질적인 조직문화의 변화, 조직의 소통관리체계 확립의 기회로 삼는다. 이번 소통 코너 운영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훈 부군수는 “민선8기 균형 방향은 변화와 혁신, 창조”라며, “군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과학기술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